

經營戰略으로서의 特許管理

日本 고니카(株)는 사진필름·인화지·사진약품·사진프린트機器·카메라 렌즈·사진기·OA機器·醫用機材·인쇄용機材·마그네트 테이프 등을 製造 販賣하는 資本金 350억엔에 從業員 4천 9백명의 大企業이다.

特許部門은 出願·契約·情報·管理 등의 機能에 應하여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運營하고 있다.

日本 사진業界의 獨步的 存在임을 자랑하는 고니카(株)의 特許管理 내용을 알아본다.

〈編輯者 註〉

特許部門의 沿革

1백 15년의 歷史를 자랑하는 고니카(株)도 처음에는 가두판매로 創業했으나 지금은 사진業界의 獨步的 存在로서 손색이 없다.

創業 당시에는 주로 사진재료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이 主業이었으나 創立 5周年째부터는 카메라를 製造販賣하기에 이르렀다.

當社의 第1號 特許는 明治 39년 11월에 出願하여 다음해 4월에 登錄된 ‘카메라 플레쉬’ 당시까지만 해도 特許管理는 서무부문이 담당해왔으나 第1號 特許登錄을 계기로 本社企劃調查部 特許課가 創設되었다.

迨 第2次 世界大戰後부터는 化學研究所와 光學研究所가 각각 獨立하고, 각研究所의 管理課와 特許調查課가 統合되어 特許調查部門이 誕生하여 지금의 特許部門의 母體가 되었다.

즉, 1918년 모든 特許關聯業務

가 集約되어 特許部로서 本社 조직중의 獨立部門이 되었으며, 그후 수차에 걸쳐 명칭이 변경되었다.

特許部門의 主業務는 技術이 關聯된 權利(意匠·商標·著作權포함)의 權利化·保護·管理·活用·交渉·契約·訴訟등이다.

特許部門의 特徵

特許業務의 OA化

當社의 特許管理는 特許活動의 活性화에 따른 出願건수의 增大에 수반하여 特許出願管理의 確實性 향상·省力化·신속 대응화를 위해 1981年 가을 特許部門의 OA化(컴퓨터 이용)을 이루었다.

그후 改善을 거듭해 왔으나 特許廳의 페이퍼리스化의 決定開始에 따라서 特許廳시스템에의 必然的 對應과 實務의 運用에 의해 생긴 여러가지 必要에 對應하기 위한 대폭적인 再 OA化를 開始했다.

고 니

1백 15년

特許情報의 OA活用

當社는 特許情報의 OA活用을 위해,

▲外部에 確立된 시스템(PATOLIS, JOIS, DIALOG, ORBIT, QUESTEL 등)의 有機的活用

▲ 이를 組合해서 社內 獨立 시스템에 연결하여 使用하고 있다.

특히 必要 情報을 必要 目的에 應하여 必要 포맷으로 정화하고 신속하게 얻기위한 시스템의 향상과 각 研究部門과의 온라인 시스템의 향상에 努力하고 있다.

研究의 多樣化에 對應

當社는 研究分野가 電氣分野 등 매년 擴大하고, 技術의 복잡화와 함께 研究의 多樣化가 현저함에 따라 각 研究部門에서 特許責任者를 엄선하고 特許部門과의 연락적 기능과 각 研究部門의 特許業務결정 기능을 연결시켜 全體로서 효율적 運用을 도모하고 있다.

國際化 對應

當社는 國제적 무역 마찰의 발생으로 特許問題의 多發에 對備할 必要性과 海外展開의 擴大에 副應하기 위해 海外에 스

카 (株)

傳統의 特許管理

aptop을 配置하고, 항상 特許事務所에서 實務의 研修에 努力하고 있다.

重點處理 事項

新製品의 多角化와 製品開發의 스피드업에 對應하면서 현저하게 增大하는 特許의 효율적 감독체계의 強化를 하는 한편 價值가 높은 自社 特許의 開發·育成·活用을 重點的으로 處理하고 있다.

日常業務

出願業務

기본적으로는 發明人으로부터 研究部門의 特許 責任者를 거쳐 特許部 擔當者에게 明細書가 送付되고, 이중에서 必要한 것에 한해 内容을 검토하여 出願하고 있다. 出願은 대부분 辩理士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중요한 技術은 研究開發의 초기 단계부터 研究部門과 特許部가 一體가 되어 發明의 内實을 기하고, 出願은 역시 辩理士에게 위임하고 있다.

外國出願여부는 特許部長이 각 研究部門으로부터의 申請에 근거하여 決定하며, 出願은 國內 代理人을 거치는 것이 대부

분으로 國內 出願 擔當者가 實務를 맡고 있다.

審判請求는 정기적으로 出願의 중요도 發明의 成立性을 감안한 뒤 決定하고 있다.

年金납부는 국내는 OA活用에 의해 社內에서 管理하고, 外國의 경우는 海外管理會社를 委嘱하고 있다.

契約業務

工業所有權에 관한 契約·技術導入契約·技術援助契約·共同開發에 관한 契約등 技術이 관계된 契約에 관여하고 있다. 관련 部門과 調整한 후立案·交涉을 하고 있다.

權利의 活用

權利유지 管理에 관해서 定期적으로 檢討하고, 權利의 유지 및 포기를 決定하고 있다.

特許業務 管理

EDP化하고, 이것과 퍼스콤은 併用하고, 日程管理·品質管理·檢索·調查·統計·기타業務의 管理를 하고 있다.

特許情報의

蒐集·利用·管理

온라인 利用과 함께 관련 部門과 密接하게 調整한 후 하드카피를 구입하여 必要部門에 必要 特許情報を 配布하고 있다.

이들 하드카피는 特許部가 1部 保管하고, 分類·製本·마이크로화하여 特許情報에의 접근을 容易化하고 있다.

究研·企劃部門과의 協力

각 開發過程에서 체크 포인트와 함께 共同作業을 하고 있다.

意匠·商標管理

社名 变경을 기하여 적극적으로 商標出願을 하고, 出願·management체제를 정립했다. 意匠은 관련 部門과 연결하여 出願·監示를 하고 있다.

特許部員의

教育·研修

特許協會의 研修, 外部 세미나의 活用, 外部 委員會活動, 海外實務研修, 社內 세미나등에 의해 지식 및 경영의 연마와 啓發意慾 高揚에 努力하고 있다.

特許意識 高揚對策

技術者를 중심으로 新入社員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레벨에 對應한 特許教育을 하고 있다.

한편 發明의 奬勵로서 出願補償 및 登錄補償과 實施實績에 對한 實務補償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計劃

새로운 國際化 여파에 企業體質이 현저하게 변화될것이 요구되는 와중에서 海外子會社에 관한 特許管理등 새로운 體制가 要求되고 있다.

이에 따라 體制정립을 할 計劃이다. <※>